

## 아르헨티나의 채무협상 타결과 디폴트 해결

### ■ 헤지펀드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의 채무 상환 협상이 지난 2월 29일에 타결

- 2001년 채무 디폴트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는 2005년과 2010년 채무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원금의 75.6%를 탕감 받았으나, 채무구조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헤지펀드가 원금상환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하였고 2014년 6월에 승소함.
  - 디폴트로 채권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Eliot Manahement, NML Capital, Aurelius Capital Management Fund 등의 헤지펀드가 약 1/10의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이후 액면가로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의 소송이 부당하다 여겨 상환을 거부해왔으나, 2015년 12월 취임한 신정부는 경제성장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2016년 2월 29일 채무협상이 타결됨.
  - 아르헨티나 정부는 헤지펀드에 약 46.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금액은 헤지펀드가 요구해오던 금액보다 약 25% 낮은 수준임.

### ■ 헤지펀드와의 협상 타결과 미국 법원의 채무 상환 재개 허용으로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해결

- 헤지펀드의 원금상환 소송 승소 이후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 대한 상환을 거부하자,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구조조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아르헨티나의 미국 내 계좌를 동결함.
- 아르헨티나는 미국 내 계좌가 동결되자 만기 채권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2014년 7월 30일 기술적 디폴트에 빠짐.
  - 아르헨티나는 채무구조조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의지와 지급 능력도 가지고 있었지만 법원의 계좌 동결 조치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14년 7월의 디폴트를 기술적 디폴트로 분류함.
- 그러나 최근 헤지펀드와의 채무협상이 타결되자 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가 2005년과 2010년 채무 구조조정된 채권에 대해 상환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디폴트가 해결됨.

표 1. 아르헨티나의 채무 디폴트 경위

일자	내용
2001. 12	아르헨티나가 815억 달러 채무에 대해 디폴트 선언
2005. 03	2001년 디폴트 채권에 대해 1차 채무 구조조정 완료
2007. 12	헤지펀드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채무 원금 상환 소송 제기
2010. 06	2001년 디폴트 채권에 대해 2차 채무 구조조정 완료
2012. 02	뉴욕 지방법원에서 헤지펀드의 승소
2013. 06	아르헨티나가 헤지펀드와의 소송을 대법원에 항소
2014. 06	미 대법원이 아르헨티나의 항소를 기각
2014. 07	아르헨티나의 기술적 디폴트
2016. 02	아르헨티나와 헤지펀드 간의 협상 타결
2016. 03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의 채무상환 재개를 허용

자료: 저자 작성

- 2015년 12월에 취임한 신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차입 재개와 경기 회복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함.
  - 크리스티나 정부(2007~15년)는 헤지펀드의 원금상환 요구가 부당하기에 이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음.
  - 그러나 2015년 말에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보수 우파의 친기업 성향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신뢰도 회복과 자금 차입을 위해 헤지펀드와의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
  - 신정부는 취임 직후 헤지펀드와의 협상을 적극 추진하였고 협상 타결에 성공함.
- 헤지펀드에 대한 협상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이 필요
  - 아르헨티나는 2005년에 '폐쇄법(Ley Cerrojo)'을 발효하여 2005년 실시한 채무구조조정의 조건보다 나은 조건으로 2001년 디폴트 채권의 채무스왑을 실시할 수 없도록 조치함.
  - 아르헨티나 정부가 헤지펀드에게 상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2005년 폐쇄법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함.
  - 3월 2일부터 국회에서 폐쇄법 무효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현재로는 무효화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한 상황임.
  - 아르헨티나는 신규채권을 발행하여 상환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양 측의 협상 내용에 따르면 오는 4월 14일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임.

&lt;자료: Financial Times, La Nación, Oxford Analytica, 연합뉴스 등&gt;

박미숙 (KIEP 미주팀 전문연구원)

---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